

“생명과 공존... 후쿠시마의 경고 담아”



오는 14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S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요시다 시게루 작가가 대표작 'NO Nukes! 가슴은 생명의 시작' 시리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개인전 갖는 日작가 요시다 시게루

2011년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은 작가 요시다 시게루(75)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참가가 터지고 3년 후인 2014년 후쿠시마를 방문했던 그는 잔잔한 바다와 반짝이는 물결 등 평화롭기 그지 없던 풍경과 쓰나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던 해변가와 마을을 보며 인간과 자연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생명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작가가 남기는 예술적 '메시지'에 관심이 많은 그는 무엇보다 원자력의 자연 파괴와 인간 파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싶었다. 후쿠시마 뿐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의 젊은 엄마들까지도 아이를 안고 남쪽인 오사카 등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엄마의 '가슴'을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요시다 시게루 작가 초대전 'NO Nukes! 가슴은 생명의 시작'이 오는 1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S갤러리에서 열린다. 일본 작가가 그룹전 등에 참여한 적은 많지만 개인전을 여는 건 극히 드문 경우다. 이번 초대전은 2017년 참여한 광주아트페어가 인연이 됐다.

“엄마의 가슴은 모성을 상징하지요.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생명줄'이요 하구요. 가슴에 표현된 '갈라짐'은 그런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품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단순한 군열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보이는 붉은 색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재생의 의미도 담고 있구요.”

갤러리를 채운 'NO Nukes! 가슴은 생명의 시작' 시리즈는 가슴을 모티브로 한

14일까지 S갤러리

생명 상징 '가슴' 작품 선보여

강제징용 장인 곡성 출신

2013년부터 광주와 인연

지난해부터 광주작가 초청

삿포로 소유 갤러리서 교류전

설치 작품들로 각기 다른 형태의 '군열'이 인상적이다. 나무판에 원형의 가슴을 여러 개 부착한 작품들로 색칠을 한 후 그대로 방치, 표면이 말랐을 때 자연스러운 갈라짐을 얻어냈다.

또 하나, 가슴에 그려진 다채로운 생물이 눈길을 끈다.

“가슴에 새겨진 큰 거미는 에도시대부터 나뭇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했죠. 풍뎉이나 개구리 역시 밭에 살고 있는 나뭇 벌레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모두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들로,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작인 '인생 여러가지' 시리즈는 8개의 각기 다른 조각들을 자유롭게 배치한 작품들로 일본 안료를 활용한 파스텔 느낌의 은은한 색감이 인상적이다. '8'은 일본에서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작품은 각각 독특한 리듬감을 구현한다.

요시다 작가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깊

다. 곡성 출신인 장인은 1945년 1월 1일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후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삿포로에서 자수성가했고 항상 고향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려 애썼다.

그런 장인을 결해서 지켜보며 그 마음을 이으려했던 요시다 작가는 지난 2013년 홋카이도 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 공동 기획한 '한국 홋카이도 미술교류전'을 통해 광주와 인연을 맺은 후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삿포로 '갤러리 레타라'에서 홋카이도 문화재단과 '2x2 홋카이도 광주미술 교류전'을 진행중이다. 5년간 광주 작가 20명을 초청해 홋카이도 작가와 공동 전시회를 여는 프로젝트로 2017년에는 이기원, 위진수, 정명돈, 최순민 작가가 참여했다. 올해는 김다희, 채종기, 백애영, 정성원 작가가 참여해 아이라 요시노리, 야코 나오코 등 홋카이도 작가들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1년에는 삿포로 예술의 숲에서 전체 작가가 참여하는 대형 전시도 열 계획이다.

“숫자 '2'는 곱하거나 더했을 때 똑같이 4가 되는 평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작가들 초청하는 건 만만치 않죠. 연금과 비상금 털어서 작가를 초청하지요(웃음). 세을 화단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광주와 인연이 깊고 작품이 좋습니다. 광주와 인연이 깊고 작품이 좋습니다.”

요시다 작가는 1966년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수십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JR타워 호텔 닛코 삿포로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마루이 이마이 백화점 소팔백 아트 디렉션도 맡았다. 오픈식은 5일 오후 6시다. 문의 062-228-8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6일 개원식·학술회의

광산구 공무원교육원 입주

고문서·생활사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작업

호남을 토대로 하는 한국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학의 호남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 9월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연구직을 채용 중에 있다. 현재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 3층과 4층에 입주해 있으며, 향후 우리 지역에 산재한 고문서와 생활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한국학이 생활과 밀착한 분야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초대원장 이종범)은 오는 6일(오후 1시 20분) 1층 중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식 및 공동학술회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하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고전번역원이 협력



이종범 원장



안병욱 원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는 출범과 아울러 한국학 진흥정책에 있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이상과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크게 개원식 및 기초강연, 학술회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명 전남행정부지사의 환영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유동 한국국학진흥원장·신승은 한국고전번역원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 초대원장의 개인인사에 이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기초강연이 펼쳐진다. 공동학술회의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통합적 문헌조사 방법론-한국학중앙연구원 문헌 조사의 회고와 반성'을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기획유산센터장이 나서 '한국학 진흥을 위한 정책수요와 연구과제-한국국학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세 번째 순서는 최성환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이상과 사업계획'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3개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진재교 성공관대 동아시아학술원장을 좌장으로 김현영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교육원 교수, 이옥순전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범 원장은 “올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국학진흥원(안동)과 연계해 시대를 담아내는 한국학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공동학술회의 개최뿐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한 자료 수집, 연구 발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 정중동'

주암 조연강 작품전 '자연 그리고 정중동'

9일까지 휴광갤러리

주암(住岩) 조연강 작품전이 오는 9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휴광갤러리에서 열린다.

“자연 그리고 정중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다채로운 색감의 수목 채색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와 안개 낀 산봉우리, 질푸른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들을 묘사하기도 하고 노란

유채와 붉은 진달래 등 봄을 알리는 화려한 꽃들로 화폭을 수놓았다. 그밖에 나무와 꽃들이 만발한 한가한 시골풍경, 멀리 떠 있는 섬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여촌풍경 등도 만날 수 있다.

조 작가는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남도미술대전 등 공모전에서 특선 입상했다. 현재 전남도·광주시 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이며 한국실사회 현목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기자 mekim@

국립나주박물관

봉황고 학생 18명 참여

'역사영재학급' 운영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전남남도교육청·나주봉황고등학교와 손잡고 역사분야 영재를 후원하는 '역사영재학급'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문화재 보존과학자 등을 꾸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국립박물관과 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가 협력해 '역사영재학급'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주혁신도시에 자리한 봉황고등학교 1~2학년 중 역사와 고고학, 고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 18명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들은 12월까지 국립박물관 관장과 대학 교수, 큐레이터, 역사 교사 등과 함께 특강과 토론, 역사유적 답사, 박물관 전시 및 해설 실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물관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 등의 실무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역사 지식과 역사관을 정립해 미래의 역사학계를 이끌어 나갈 재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61-330-7822.

/박성천기자 skypark@

에능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소확행
트렌드
확신

북간 5주년 - 발행인의 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사냥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⑥
남남,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매망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올리 다시보기④-
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폴리

문장이 승수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문화연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⑧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틸비트 vs. 멜릭

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⑦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대나무 사이로
부하꽃 흰 생테도시
다양한
-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풍으로
- 담양식 데자갈비, 떡갈비